



가스펠 프로젝트

CHRONOLOGICAL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공부

10 한때 지혜로웠으나
어리석어진 왕
**The Foolishness of
a Once-Wise King**

구약04 | Old Testament 04



가스펠 프로젝트

CHRONOLOGICAL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공부

“창조의 하나님
God the Creator”

01 창조
Creation

10

10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 The Foolishness of a Once-Wise King

(내 말을 잊었느냐? 어리석구나)

요약 | Summary

이 과에서는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드러낸 어리석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누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곧 지혜와 의가 완전하신 진정한 왕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In today's session, we look at the foolishness on display near the end of Solomon's reign.

Solomon's story is a reminder that all of us are capable of derailing our walk with God by making foolish choices. It is also a reminder our only hope is in the True King whose wisdom and righteousness is perfect—Jesus Christ.

성경 | Scripture

열왕기상 11장 1~13절; 누가복음 11장 31절
1 Kings 11:1-13; Luke 11:31

포인트 | The Point

어리석음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

Foolishness is the failure to give God glory in every area of life.

등장인물 | Characters

□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The Triune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 솔로몬(다윗의 아들로써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약의 많은 지혜 문학을 쓰고 성전을 건축함)

Solomon - son of David who succeeded him as king over Israel. Solomon is known for his God-given wisdom—having authored many books in the Old Testament wisdom literature—and his building of the temple

메세지 좌표 | Plot

지금까지 살펴본 솔로몬 이야기는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혜로 축복하셨고, 그는 그 지혜를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화평으로 축복하셨고, 성전을 지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건짐을 받았고, 그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았고, 그들에게는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 있었으며, 다른 나라도 그 왕이 가진 지혜의 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까요? 역사는 솔로몬의 통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Everything we have seen about Solomon has been positive up to this point in the story. God has blessed him with wisdom and Solomon has used that wisdom to benefit God's people. God has blessed him with peace, giving Solomon the ability to build the temple. Things have gone well. It looked like God's promises to Abraham were coming true: God's people had been rescued, they were living in the land God promised to them, they had a good and wise king, and other nations were being blessed by Solomon's wisdom. But would it last? How would history remember Solomon's reign?

Intro

5-10분 | 5-10 minutes

A.

톨킨(J. R. R. Tolkien)의 걸작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진정한 왕 아라곤이 마침내 왕관을 쓰고 그에게 합당한 왕좌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봤다면 이 장면에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왕에게 다스림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이 장면에 공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왕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갈망하는 왕은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선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왕입니다. 그 왕은 공의와 의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갈망이 진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불행히도 역사는 우리가 거짓 왕을 너무나도 자주 맞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심지어 선했던 왕도 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기를 원하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까닭은 그들이 왕을 원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왕을 원했고, 다른 나라와 같아지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셨지만, 왕을 좇다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한때 지혜와 공의로 다스렸으나, 주지하다시피 그를 왕으로 불러 세워 주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서부터 그의 삶과 통치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지혜의 모범이었으나, 이제는 어리석음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 경건했던 지도자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One of the most compelling scenes in J.R.R. Tolkien's masterpiece *The Lord of the Rings*, is when Aragorn, the true king, is finally crowned and takes his rightful place on the throne. If you've seen the movie, you know it's a scene that stirs emotions. Even though most of us have never been ruled by an earthly king, something within us resonates with this picture. Could it be that, deep down, we long for a king? Not just any king, to be sure; but a good, wise, and gracious king. One who will rule and reign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One who will set all things right.

As we read the Bible we find that this longing is actually rooted in truth. The true King exists, and He is coming back to set all things right! Unfortunately, history has proven that we too often embrace the wrong king and even good kings can go bad.

When Israel first asked for a king like the other nations, God was displeased with their request. But His displeasure was not that they wanted a king, it's that they wanted the wrong king and they sought to be like other nations. Even though God conceded to their request, He warned them about living under kings whose hearts turned away from following Him.

Perhaps the saddest of these examples is King Solomon. At one time he ruled in wisdom and justice. But as we will see today, Solomon's life and reign spiralled out of control as he turned from the God who called him and established him as king. Earlier we looked at him as the example of wisdom, but now we look to him as an example of foolishness.

→ ***When have you been disappointed by a godly leader who did something foolish? How did you handle your disappointment?***

B.

1858년 6월 15일 링컨(Lincoln, Abraham)이 미국 노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중대한 연설 중 하나를 했습니다. 이 연설은 일리노이 상원의원으로도 뽑히지 못했던 그를 국가적 차원의 무대로 끌어 올렸습니다. 당시 연설 가운데 '스스로 분리된 집은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 12: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아내들과 재물들 사이에서 나뉜 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 분열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마음이 분열된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 이러한 분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초점이 잘못놓였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나요?

On June 15, 1858 Abraham Lincoln gave one of the United States' most noteworthy speeches concerning the issue of slavery. Though Lincoln would not be elected as Illinois' Senate representative, this speech propelled him onto the national stage, particularly the quote: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What many people don't know is that this phrase has biblical roots. Jesus said, "Every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is laid waste, and no city or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will stand." (Matt. 12:25). Solomon's heart became divided between his wives, his riches, and following God. Because of this division, He made some foolish decisions. In the same way, if our hearts are divided, we can easily fall into a pattern of making foolish decisions as well.

→ ***When have you seen this happen in your own life? What happened to help you realize your focus was misplaced?***



이 회색 세로줄이 있는 단락은 일반 교재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Every time you see this bar in this booklet, it indicates the same material is also found in the personal study guide as well.

HIS STORY

20-30분 | 20-30 minutes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야기
God's story of Redemption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01.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 SOLOMON COMPROMISES HIS DEVOTION TO GOD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와 막대한 부를 보여 줍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깊은 통찰력에 매혹되었던 일을 묘사하면서 솔로몬의 소유물 목록을 아주 상세히 보여 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더라면,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대해 마지않았던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대대로 영원히 다스릴 이가 바로(마침내!) 그가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죄의 길로 나아가고 결국 몰락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왕상 11:1~8).

성경 가운데 우상 숭배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장면 중 하나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어리석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하는 것이라면, 어리석음은 주님보다 다른 무엇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에는 늘 우상 숭배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의 경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곁에 다른 신을 더했을 뿐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숭배했습니다. 야훼를 다른 신들과 나란히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는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에 관해 특별 명령을 내려 주신 바 있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금이나 말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되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신 17:14~20). 그렇게 하면, 미혹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쌓았고, 말과 병거가 허다했으며, 그의 궁에는 그의 여인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양자택일을 요구했던 일을 기억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수 24:15). 여호수아에게 그것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 때로 당신의 관심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또는 당신의 소유물 사이에서 어떻게 나뉘니까?

1 Kings 10 describes Solomon's great wisdom and his great wealth. It describes the Queen of Sheba as mesmerized by the depth of his insight and it gives us a detailed list of his possessions.

If Solomon's story stopped there, we would be applauding him as the greatest king in Israel. We might even be wondering if he was (at last!) the long-awaited king whose sons would rule over God's people in God's promised land forever. Unfortunately, the story goes on to reveal Solomon's compromise and downfall.

Now King Solomon loved many foreign women, along with the daughter of Pharaoh: Moabite, Ammonite, Edomite, Sidonian, and Hittite women, from the nations concerning which the Lord had said to the people of Israel, "You shall not enter into marriage with them, neither shall they with you, for surely they will turn away your heart after their gods." Solomon clung to these in love. He had 700 wives, princesses, and 300 concubines. And his wives turned away his heart. For when Solomon was old his wives turned away his heart after other gods, and his heart was not wholly true to the LORD his God, as was the heart of David his father. For Solomon went after Ashtoreth the goddess of the Sidonians, and after Milcom the abomination of the Ammonites. So Solomo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did not wholly follow the Lord, as David his father had done. Then Solomon built a high place for Chemosh the abomination of Moab, and for Molech the abomination of the Ammonites, on the mountain east of Jerusalem. And so he did for all his foreign wives, who made offerings and sacrificed to their gods. (1 Kings 11:1-8)

What we see here is one of the most illustrative pictures of idolatry in the Bible. Idolatry and foolishness go hand in hand. If wisdom means to fear the Lord first and foremost, then foolishness is to place something above the Lord. Foolish choices always accompany idolatry.

In Solomon's case, there is no outright rejection of God. He wasn't setting God aside; he was adding other gods around the Lord. He wasn't disregarding the Lord altogether; he was partially regarding the Lord. He chose to follow Yahweh alongside other gods.

Solomon's sin began when he decided to disregard the Lord's commands. Before God brought Israel to the promised land, He gave them specific commands about how kings were to conduct themselves. They were not to gather much gold and horses for themselves, and they were not to acquire many wives (Deut. 17:14-20). If they did, their hearts would go astray.

We see this fleshed out in Solomon's life. He acquired much wealth, vast amounts of horses and chariots, and he had 1000 women in his court. The result? His heart was led astray.

Remember Joshua's black-and-white challenge to Israel? "And if it is evil in your eyes to serve the LORD, choose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whether the gods your fathers served in the region beyond the River,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dwell.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Josh. 24:15). For Joshua, it was all or nothing. You're either with God or you're not.

→ ***How is your focus sometimes divided between God and other people or your possessions? (p. 66, PSG)***

다윗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바꿔 놓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아내들은 자기 민족 신의 열성 신도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적인 타협이 솔로몬의 이방인 '아내들에게는 의례적인 정치적편법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외국 대사관 내에서는 자국 법률과 관습대로 행할 수 있도록 치외 법권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식적인 원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는 모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다롯'(아스타르테, 이쉬타르)과 '밀곰(몰렉)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숭배되던 국제적인 신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그모스'는 '모압'의 민족 신으로 전쟁의 신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David had also married foreign wives, but they did not change either his religious life or that of the nation. Solomon's wives, on the other hand, were known devotees of their national deities... These religious compromises were likely seen as politically expedient acts of courtesy to Solomon's foreign wives, comparable to extraterritorial privileges that allow embassies in our time to conduct themselves according to the laws and customs of their native land, but these common-sense principles conflicted with faith in God and God's covenant with Israel. Both Ashtoreth (Astarte, Ishtar) and Milcom (Molech) were international deities worshiped under numerous names in different countries. Chemosh, by contrast, was a god of Moab, probably a god of war. *Holman Christian*

Standard Study Bible (Nashville, TN: Holman Bible Publishers, 2010).

02.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나 | SOLOMON'S CHOICES HAVE CONSEQUENCES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필연적으로 주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한 우상 숭배의 결과를 그의 아들이 거둬들였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분열된 왕국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같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왕상 11:9~13).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분명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왕상 11:14~40)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찢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나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은 이와 같은 일들을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만 피해보면 될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C. S. 루이스는 *The Voyage of the Dawn Treader*(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호의 항해) 끝부분에서 왕권의 본성에 관해 설명합니다. 캐스피언 왕이 자기 배를 포기하고 왕관도 버린 채 모험을 찾아 세상 끝으로 항해하겠다고 선언하자, 생쥐리피침은 그를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니아의 왕이에요.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신하, 특히 트럼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어요. 평민이나 된 듯이 모험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도 폐하가 사리 분별을 못하시겠다면, 제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무장 해제시키고 묶어 두라고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내 명령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 될 것입니다.” 루이스가 이 대사를 쓸 때 솔로몬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에게는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일반인이 되어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은 분명 개인적인 것이지만, 혼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결정은 공개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Our choices impact others, often more than we know. When we make foolish choices, we inevitably create problems for those around us. Solomon's son reaped the consequences of his idolatry, and so did the nation of Israel, which saw a divided monarchy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Let's read about the Lord's response to the folly Solomon allowed in his life.

And the Lord was angry with Solomon, because his heart had turned away from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had appeared to him twice and had commanded him concerning this thing, that he should not go after other gods. But he did not keep what the Lord commanded. Therefore the Lord said to Solomon, "Since this has been your practice and you have not kept my covenant and my statutes that I have commanded you, I will surely tear the kingdom from you and will give it to your servant. Yet for the sake of David your father I will not do it in your days, but I will tear it out of the hand of your son. However, I will not tear away all the kingdom, but I will give one tribe to your son, for the sake of David my servant and for the sake of Jerusalem that I have chosen." (1 Kings 11:9-13)

These words must have hit Solomon like a freight train. Not only would Solomon suffer (1 Kings 11:14-40), but the kingdom would be torn from his son's hands. His idolatry led Israel into a downward spiral that would eventually result in their exile into Babylon years later. This is what happens when we allow foolishness to lead us into idolatry. We may think we are only hurting ourselves, but we inevitably hurt other people as well.

Near the end of *The Voyage of the Dawn Treader*, C.S. Lewis explains to us the nature of kingship when King Caspian announces that he will abandon his ship, forsake his crown, and sail on to the end of the world in search of adventure. Reepicheep makes it clear to Caspian that he cannot do as he wishes. He says, "You are the King of Narnia. You break faith with all of your subjects and especially with Trumpkin, if you do not return. You shall not please yourself with adventures as if you were a private person. And if your Majesty will not hear reason it will be the truest loyalty of every man on board to follow me in disarming and binding you till you come to your senses."² One wonders if Lewis had Solomon in mind when he wrote these words.

Sadly, Solomon had no one to help him come to his senses. In fact, he did choose to live like he was a private person. The reality is, we are not private people. Our walk with the Lord is personal, no doubt, but it is not private. We may make decisions in private, but our decisions have public consequences.

그리스도와 의 연결 | Christ Connection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에서 낙담할 이유와 용기를 얻을 이유를 모두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저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탈선하는 것을 보고 낙담하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한 번 힐끗 보고 나서 진정한 왕에게로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솔로몬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찾던 인물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고 전하는 누가복음 11장 31절을 살펴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눅 11:31).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부와 권세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상의 왕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히 13:8).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영웅조차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더욱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현명한 잠언과 명언을 능가하는 교훈을 예수님에게서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When we look at the life of Solomon we have reason to be both disheartened and encouraged. We are disheartened that he compromised his devotion to God and derailed his kingship. But we should also be encouraged because we know that the story does not end there. Solomon is not our king. He is not the true king. We are only to glance at Solomon, and then turn our gaze on the True King.

Solomon was never enough. We need a greater king than Solomon. As we come to the New Testament, that is what we find. Let's fast forward to the Gospel of Luke, where Jesus speaks of Himself as greater than Solomon.

The queen of the South will rise up at the judgment with the men of this generation and condemn them, for she ca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hear the wisdom of Solomon, and behold, something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Luke 11:31)

Solomon dazzled the world with his wisdom, riches, and power, yet look at how things ended. He failed. Earthly kings, rulers, and powers will always fail us. We must not look to them. We must look to Jesus Christ. He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b. 13:8). He will never leave us or forsake us. His love is constant. His grace is limitless. His mercies are new every day.

In this session, we've seen that even the greatest heroes of the Bible can choose foolishness over wisdom. In seeing their failures, we are stirred up to hope even more in Jesus—our King. We have much to learn from men like Solomon. But beyond all the wise proverbs and sayings that he has

given us, perhaps the biggest lesson we take away from him is that we need Jesus more than we've ever imagined.

알짬 교리99: 죄- 이기심 | 99 Essential Doctrines: Sin As Selfishness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이기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여기고 죄를 짓습니다. 죄는 자신을 향해 '안쪽으로 굽는' 성향으로 나타나므로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생각에서 자기보다 남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빌 2:3). 죄는 이기적으로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반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기쁨을 위해 일합니다.

When we sin, we are acting out of a selfish attitude and mindset that assumes our action will lead us to more happiness than if we were to obey God. Because sin is manifested in our tendency to be “curved inward” toward self, it is the opposite of love. Love looks outwardly to place others before oneself, operating from the mindset that others are more important (Phil. 2:3). Where sin selfishly seeks personal gratification and happiness, love works for the joy of others in the hopes of making others happy in God.

YOUR STORY

10-15분 | 10-15 minutes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는 곳 | *Where your story meets His.*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나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 솔로몬은 너무 많은 소유물을 가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줍니까? 그리스도와 동행 방해하는 소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솔로몬은 이방에서 온 수많은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애정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비슷한 결과를 맞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솔로몬의 어리석음은 자기 죄가 주변 사람에게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죄가 주변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의 죄를 사적인 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가 자신에게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죄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죄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 이 과의 내용은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God's Story has always been designed to connect with your story. It is because of His Story that our stories make sense, have meaning, and carry on into eternity. Use the questions below to help think through how His Story connects with your own.

- ***Solomon disregarded God's command about having too many physical possessions. How can this serve as a warning for us? What are some physical possessions that have interfered with your walk with Christ?***
Answers to this will vary.
- ***Solomon also allowed personal relationships in his life to direct his affections away from God. How can we avoid similar outcomes in our own relationships?***
Answers to this will vary.
- ***Solomon's foolishness blinded him to the long term effects his sin would have on those around him. Why do you think people don't usually consider the negative impact sin can have on those around them?***
Most people view personal sin as a private affair, with perhaps the only consequences being to themselves. Not only that, but sin, having the selfish nature that it does, has blatant disregard for others around us to the point that when we are engrossed in our sin, we simply don't care about how it will impact those closest to us.
- ***How has this session challenged you personally?***

Answers to this will vary.

YOUR MISSION

10-15분 | 10-15 minutes

생각 | Head

고린도전서 5장에서 온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이는 부도덕한 사건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전 5:6~7).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주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다른 사람이 현명하게 선택한 덕분에 좋은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다른 사람이 어리석게 선택한 탓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In 1 Corinthians 5, the apostle Paul addressed a case of immorality of which the entire church seemed to be proud. Listen to his words to them, "Your boasting is not good. Do you not know that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Cleanse out the old leaven that you may be a new lump" (1 Cor. 5:6-7a). Do you see what Paul is saying? The sin of one individual was permeating the entire church. The foolish decisions of one person affected all of them. The same is true for us as well. Choosing to walk in foolishness will impact those around you.

- ***How have you been positively affected by someone else's wise choices?***
Answers to this will vary.
- ***How have you been negatively affected by someone else's foolish choices?***
Answers to this will vary.

마음 | Heart

우리는 마음의 우상에서 비롯된 파괴적인 영향을 거듭해서 봤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이나 경험이나 갈망이 우리 관심과 생각과 애정을 차지한다면, 하나님은우리 삶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시 86:11). 그는 하나님을 일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합당하게 경배하거나 경외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징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이들을 앞세우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을 자꾸만 분열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We have seen time and time again the devastating effects that come from heart idols. Idolatry creates division in the hearts of God's people by setting up on the throne of our hearts. When some other person, experience, or pursuit grabs our attention, thoughts, and affections, God is slowly pushed away from the centre of our lives. The Psalmist recognized this when he prayed, "Unite my heart to fear your name" (Ps. 86:11b). He knew that he could not worship and fear the Lord appropriately unless God had his undivided affections.

- ***What are some signs that a person has a "divided" heart?***
Answers might include treasuring God's gifts more than God, putting others before y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so on.
- ***What tends to divide your heart from devotion to God?***
Answers to this will vary.

행동 | Hands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물질적인 소유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함정에 관해 교훈을 얻고, 또 이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 내야 할지 더욱 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며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 세상의 지혜가 믿지 않는 자를 낙담시킬 때,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한 주간 변화된 삶을 살도록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There are several practical applications that stem from this session that should challenge the way we live from day to day. We can learn from Solomon about the traps of material possessions and unhealthy relationships, and how those can lead one's heart astray. We can be on guard more when it comes to fending off heart idols. We can be challenged with the fact that, as with the people of Solomon's time, our world today needs a greater wisdom—a wisdom that saves. And as Christians, we are the ones to talk about Him. Whatever the application, be sure to not just hear this story, but allow it to challenge you to live differently as a result.

- ***How can we serve and support unbelievers when the wisdom of this world lets them down?***
Answers to this will vary.
- ***How has this challenged you to live differently this week?***
Answers to this will vary.